



작성자

고등학생



책제목

뫼비우스의 띠

학생 작성 글

▶오늘날의 현대사회에서는 높은 수준의 질, 외양, 개성 등이 자유로이 나타나고 있는데 반해, 60~70년대의 사회에서는 개성, 풍요로움, 선택 등의 이런 것이 없었다. 그 당시의 사회적 배경은 나라의 산업을 육성하는 경제개발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상태라서 그 당시 사회의 모순점, 피지배계층의 사람들의 생활까지 신경을 쓰지 않았다. 오직 정부에 속한 고위 관리직이나 높은 지배층의 사람들이 자신의 생활수준을 높이는 것과 동시에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려고 했기 때문에 피지배계층인 노동자계층의 사람들은 반발이라고는 있을 수가 없었다. 이런 이유로 사회의 모순점은 개선되지 못한 채 그 부담이 전부 사회적 약자인 노동자나 빈민계층으로 떠넘겨진 것이다. 이 떠넘겨진 빈민계층의 부담을 누가 알아주고 그것을 개선 할 수 있겠는가? 이런 부담을 갖고 있는 사회적 모순이 무엇인지에 대해 알아 볼 필요가 있다.

▶먼저 60~70년대의 경제개발이 활발한 사회에서의 모순은 안과 겉이 구분이 안 된다는 것이다. 이것은 어쩌면 그 당시 사회적 모순의 핵심이라 고도 할 수 있다. 뫼비우스의 띠에서 한 가장인 곱추가 피해자가 아닌 가해자가 될 수 밖에 없는 현실. 즉, 피해자와 가해자의를 구별할 수 없는, 다시 말해 현실에 안과 밖을 구별할 수 없는 '뫼비우스의 띠'가 있다는 말이다. 여기서 작가가 표현하고자 한 것은 이러한 비극적인 사회적 모순을 비판해서 그것을 바로 고치자는 의도 인 것 같다. 이 소설속에 숨겨진 작가의 메시지를 사회의 모순과 연결시켜 비판하면서 앞으로의 우리 경제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학생 작성 글

▶ '뫼비우스 띠'를 켈 처음 발견한 빌이 말했다. "나는, 솟아오르는 바람을 맞아 회전하는 현수 조각을 구성하는 과정에서, 오직 한 면만을 가지는 물체를 만들어냈다" 라고 말했다. 빌이 이런 단순한 원리를 발견하면서, 그 내용을 이런 사회적 모순으로 연결시킬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솔직히 놀란다. 오직 한 면만을 가진 뫼비우스 띠는 오직 한 면, 즉 사회를 너무 단편적인 입장에서만 보고 있는 것 같다. 단편적으로 보지 않고 다양한 관점에서 봤더라면 그 당시에 곱추가 가해자가 되는 그런 비극적인 결말이 나타났을까. 물론 그런 비극적인 일이 나타나지는 않았을 것이다.

▶ 철거민들과 혈값에 입주권을 산 기회주의적인 사람들 사이의 갈등에서, 이 글을 얘기 하고 있는 교사는 대학가기 전까지의 배운 지식들을 자신의 이익에만 집착해서 써먹지 말고, 그 지식을 통해 사물을 올바르게 통찰 하는데 써야 한다면서 이 글을 마친다. 지금 까지, 자신이 배웠던 지식을 현재 사회의 한 모순점을 올바르게 살펴보는데 써야 하지는 않을까. 너무 사회가 흘러 가는데로만 아무 비판없이 보는 현대인들에게서 이 '뫼비우스의 띠'의 단편소설은 정신적 각성을 주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이다. 나는 이 뫼비우스의 띠의 내용과 난쏘공의 사회적 배경이 같다는 것을 안다. 그래서 전체적인 내용흐름과 배경이 거의 같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차이점이 있다면 난쏘공에 나오는 아버지 '김불이'의 경우에는 사회적으로 낮은 계층의 사람으로 즉, 사회적 약자로서 큰 반발 없이 그냥 사회적 흐름.체제를 받아들이고 살아 간다. 아버지인 경우에는 어떡해서든지 가정을 책임지고 이겨내려고 해야 하는데, 결국 벽돌공장 위에서 자살을 하고 만다. 그에 반해 뫼비우스의 띠의 주인공인 곱추는 자살은 하지는 않지만, 그 사나이를 죽이고 만다.

▶ 위의 내용에서 나온 사회적 모순을 해결 하기 위해서는 먼저 정부가 주도 하는 사회가 아닌 국민의 주도 아래 사회가 운영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 글을 읽고 있는 즉, 지식을 쌓아가고 있는 우리들은 그러한 사회적 모순을 비판해야 하고, 고위층의 개념있는 관리자들은 자신의 이익에만 급급하는 자신들의 동료들을 아무 감정없이 다 잘라 내도록 해야 한다. 사회적으로 성장을 하기 위하였다는 그런 변명은 들을 필요도 없다. 중요한 것은 그런 목표 하나만 바라보는 단편적인 생각을 갖지 말고 여러 방면으로 노동자계급. 빈민층이 어떡해 생활하는가 에 대해서 더 많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산업 사회를 성장하기 위해, 너무 그 쪽으로만 보지 말고 때로는 고개 한번 돌리는 것이 이 사회가 사회적 모순이 없는 그런 복지사회에 한 걸음 더 나아 갈수 있을 것이다.



첨삭지도

◆ 대상도서에 대한 이해분석력

▶ 000 학생은 대상 도서 중 뫼비우스의 띠에 관한 내용을 깊이 이해하고 있네요. 대상도서는 1970년대 산업화 과정에서 산업 역군이란 미명 아래 희생한 노동자 계층의 현실을 고발한 소설로 유명합니다. 000 학생은 이 소설에서 노동자 가족의 현실을 이해하면서 깊이 이해하고 있다고 봐요. 뫼비우스의 띠를 '누가 가해자이고 피해자인지를 쉽게 알 수 없는 왜곡된 '현실의 상징' 이라고 파악한 것은 상당한 이해력을 갖추었다고 봅니다. ②는 000 학생이 현실을 잘못 이해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양한 관점으로 본다고 곱추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너무 자의적으로 보았네요.

▶ 논제를 <사회적 모순의 원인과 해결 방안>이라고 했는데 모순에 대한 지적에서 멈추고 해결 방안이 너무 미흡한 것이 아쉽네요. 논술은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본다면 단순히 지적에서 끝나면 곤란하겠지요. 그리고 해결 방안이 너무나 미흡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어요.

◆ 창의적 사고력

▶ 현행 논술에서 가장 강조되고 있는 부분이 창의성입니다. 창의성이란 기발한 발상이나 표현이 아니라 타당한 근거를 갖고 합리적으로 타인을 설득하는 과정의 창의성을 말합니다. 풍부한 독서를 한 학생들은 다양한 근거를 제시할 수 있어 창의성 영역에서 상당히 유리합니다. 물론 단순한 배경 지식을 나열하는 것은 곤란하겠지요. 000 학생의 논술문에서 가장 아쉬운 부분이 바로 창의성 영역입니다. 대상 도서의 내용을 재해석한 면은 높이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대상 도서의 내용만을 지적해서는 좋지 않아요. 소설의 내용에서 어떤 점이 모순적이고 그에 대한 해결방안은 무엇일까에 대한 자신의 뚜렷한 견해를 제시해야 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오늘의 현실과 연결하여 제시하면 창의적 사고력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그냥 대상도서의 일부 내용만을 계속 지적하여 비판한 것은 창의성 영역에서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없다고 봅니다.



첨삭지도

◆ 문제 해결력

▶ 서론 부분에서 대상 도서에 나오는 시대적 모순을 논제로 삼았는데 결론 부분에서는 전혀 엉뚱한 내용으로 끝을 맺었네요. 논술은 결국 문제 해결을 어떻게 하는가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단순하게 사회적 모순만을 파악하는데서 멈추지 말고 더 높은 차원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당시 모순은 무엇이며 사회 계층 간의 갈등, 소외 계층에 대한 바람직한 대책은 무엇인지 정도는 제시되어야 문제 해결력에 높은 점수를 받지 않을까요. 결론 부분에서 모순 해결에 관한 언급이 있는데 본론에서 모순 해결책이 다양하게 나와야 하지 않을까요. 본론에서는 대상 도서의 내용만 발췌하여 나열하여서 더욱 아쉽네요. 적어도 대상 도서를 읽고 문제 해결을 모색한다면 다음에는 좋은 논술을 작성하리라 믿습니다.

◆ 문장력 및 표현력

▶ ①과 같은 문장은 논술에 의미가 없어요. 대상도서에 관한 독서 논술에서 뫼비우스의 띠가 소설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가가 초점이지 뫼비우스이 띠의 유래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거든요. ③과 같이 과격한 표현을 지양하세요. 논술에서 이렇게 과격하게 표현하면 채점대상에서 바로 제외됩니다. 실제 대학 입시의 채점 교수들이 평가한다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될 겁니다. ④의 문장은 너무 추상적이네요. 비유적인 표현도 아쉽네요. 논술은 문장이 명료해야 합니다. 000학생은 표현력 부분에 유의하였으면 좋겠네요. 상세한 첨삭은 본문에서 해 놓았으니 보기 불편해도 꼭 참고하세요.



참삭지도

▶(가)

▶오늘날의 현대사회에서는 높은 수준의 질, 외양, 개성 등이 자유로이 나타나고 있는데 반해, (→지금과는 달리)60~70년대의 사회에서는 개성, 풍요로움, 선택 등의 이런 것이(→등이 별로) 없었다. 그 당시의 사회적 배경은 나라의(→1970년대는) 산업을 육성하는(→삭제할 것) 경제개발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상태라서 그 당시 사회의 모순점, 피지배계층의 사람들의 생활까지 신경을 쓰지 않았다.(→이 별로 부각되지 않았다.) 오직 정부에 속한 고위 관리직이나 높은 지배층의 사람들이 자신의 생활수준을 높이는 것과 동시에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려고 했기 때문에 피지배계층인 노동자계층의 사람들은 반발이라고는 있을 수가 없었다. (→당시 정부는 외연적 물질 성장 위주의 정책을 폈기 때문에 노동자계층의 현실은 정책에 제대로 반영하지 않았다.)이런 이유로 사회의 모순점은 개선되지 못한 채 그 부담이 전부 (→대부분)사회적 약자인 노동자나 빈민계층으로 떠넘겨진 것이다. 이 떠넘겨진 빈민계층의 부담을 누가 알아주고 그것을 개선 할 수 있겠는가?(삭제할 것) 이런 부담을 갖고 있는 (→1970년대 산업화 도시화 시대의)사회적 모순이 무엇인지에 대해 알아 볼 필요가 있다.

▶(나)

▶먼저 60~70년대의 경제개발이 활발한 사회에서의 모순은 안과 겉이 구분이 안 된다는 것이다. 이것은 어쩌면 그 당시 사회적 모순의 핵심이라 고도 할 수 있다. 뫼비우스의 띠에서 한 가장인 곱추가 피해자가 아닌 가해자가 될 수 밖에 (→수밖에) 없는 현실. 즉, 피해자와 가해자를 구별할 수 없는, 다시 말해 현실에 안과 밖을 구별할 수 없는 ‘뫼비우스의 띠’가 있다는 말이다. 여기서 작가가 표현하고자 한 것은 이러한 비극적인 사회적 모순을 비판해서 그것을 바로 고치자는 의도 인(→의도인) 것 같다. 이 소설√속에 숨겨진 작가의 메시지를 사회의 모순과 연결시켜 비판하면서 앞으로의 우리 경제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① ‘뫼비우스 띠’를 쥔 처음 발견한 빌이 말했다. “나는, 솟아오르는 바람을 맞아 회전하는 현수조각을 구성하는 과정에서, 오직 한 면만을 가지는 물체를 만들어냈다” 라고 말했다. 빌이 이런 단순한 원리를 발견하면서, 그 내용을 이런 사회적 모순으로 연결시킬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솔직히 놀란다. 오직 한 면만을 가진 뫼비우스 띠는 오직 한 면, 즉 사회를 너무 단편적인 입장에서만 보고 있는 것 같다. (삭제할 것) ②단편적으로 보지 않고 다양한 관점에서 봤더라면 그 당시에 곱추가 가해자가 되는 그런 비극적인 결말이 나타났을까. 물론 그런 비극적인 일이 나타나지는 않았을 것이다.



참삭지도

▶(다)

▶철거민들과 혈값에 입주권을 산 기회주의적인 사람들 사이의 갈등에서, 이글을 얘기 하고 있는 교사는 대학가기 전까지의 배운 지식들을 자신의 이익에만 집착해서 써먹지 말고, 그 지식을 통해 사물을 올바르게 통찰 하는데 써야 한다면서 이 글을 마친다. 지금 까지,(→지금까지) 자신이 배웠던 지식을 현재 사회의 한 모순점을 올바르게 살펴보는데 써야 하지는 않을까.(→한다) 너무 사회가 흘러가는√데로만 아무 비판√없이 보는 현대인들에게서 이 ‘뫼비우스의 띠’의 단편소설은 정신적 각성을 주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이다.(→한다)나는(삭제할 것) 이 뫼비우스의 띠의 내용과 난쏘공의 사회적 배경이 같다는 것을 안다.(삭제할 것) 그래서 전체적인 내용√흐름과 배경이 거의 같다고 할 수 있다.(삭제할 것) 하지만 차이점이 있다면 난쏘공에 나오는 아버지 ‘김불이’의 경우에는 사회적으로 낮은 계층의 사람으로 즉, 사회적 약자로써(→약자로서) 큰 반발 없이 그냥 사회적 흐름.√체제를 받아들이고 살아 간다. 아버지인 경우에는 어떡해서든지 가정을 책임지고 이겨내려고 해야 하는데, 결국 벽돌공장 위에서 자살을 하고 만다. 그에 반해 뫼비우스의 띠의 주인공인 곱추는 자살은 하지는 않지만,(→자살하지 않고) 그 사나이를 죽이고 만다.

▶(라)

▶위의 내용에서 나온 사회적 모순을 해결 하기(→해결하기) 위해서는 먼저 정부가 주도 하는(→주도하는) 사회가 아닌 국민의 주도 아래 사회가 운영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럴려면 이 글을 읽고 있는 즉, 지식을 쌓아가고 있는 우리들은 (삭제할 것) 그러한 사회적 모순을 비판해야 하고, ③고위층의 개념있는 관리자들은 자신의 이익에만 급급하는√자신들의 동료들을 아무 감정없이 다 찢라 내도록 해야 한다. 사회적으로 성장을 하기 위하였다는 그런 변명은 들을 필요도 없다. 중요한 것은 그런 목표√하나만 바라보는 단편적인 생각을 갖지 말고 여러 방면으로 노동자계급. 빈민층이 어떡해(→어떻게) 생활하는가 에 대해서 더 많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산업 사회를 성장하기 위해, ④너무 그 쪽으로만 보지말고 때로는 고개 한번 돌리는 것이 이 사회가 사회적 모순이 없는 그런 복지사회에 한 걸음 더 나아 갈수 있을 것이다.

▶분량이 2068자로 적당하네요